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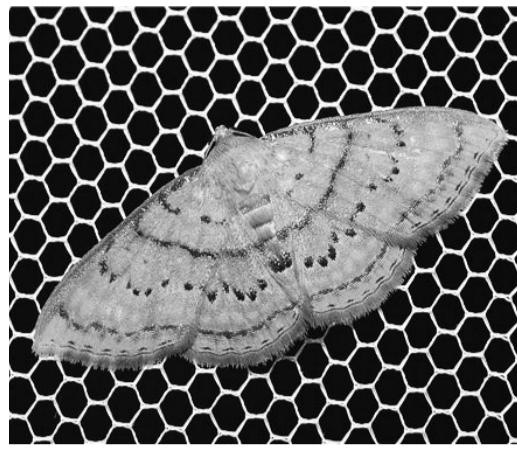
기후 변화 영향…열대생물 전남서 잇따라 발견

신안·완도서 '잎사귀큰요정갯지렁이'
흑산도서 '주홍부전찰름나방' 채집
동남아시아 미기록 곤충 연속 확인
남해안, 외래생물 조기 포착 핵심지역

인도·인도네시아 등 열대지역에 서식하는 나방과 갯지렁이가 흑산도, 완도 등 전남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9일 열대지역에 주로 서식하는 미기록종 '주홍부전찰름나방'이 흑산도 등 남부지역에서 채집돼 국내 서식이 처음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홍부전찰름나방은 강렬한 주황색 날개에 진한 푸른빛 줄무늬가 있고,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으로 뚜렷한 특징이다.



'주홍부전찰름나방'



'잎사귀큰요정갯지렁이'

모양의 판의 형태가 특징이다.

자원관은 전남 남해안의 도서 지역은 해류와 기후 영향을 동시에 받으며, 외래·남방계 생물 유입을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핵심 지역으로 분석하고 있

다. 이 외에도 전남 지역에서는 태국, 중국 남부, 동남아시아 등 고온다습한 지역에서 주로 서식하는 다수의 미기록 곤충이 최근 수년간 연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도서지역 생물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제·흑산도·완도·진도·신안 등 전국 섬 일대에서 열대·아열대 기원 미기록 곤충 45종이 잇따라 발견됐다.

거제에서는 딱정벌레목 미기록종인 '큰마리개나무좀'이 확인됐고, 흑산도에서는 딱정벌레목, 완도에서는 나비목, 진도에서는 파리목 등에서 미기록종이 채집됐다. 신안 비금도·도초도와 인근 도서에서는 고치벌류 등 별목 미기록종이 발견됐다.

이같은 생물들의 북상 흐름은 갈수록 높아지는 전남 지역의 온도 변화와도 맞물린다.

열대서식 생물이 발견된 완도와 신안 흑산도 온도는 연간 상승추세로 10여년전과 비교했을 때 여름 평균기온은 3~4도가량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기상청자료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연간 여름철 평균 최고기온은 완도가 지난 2015년 27.2도에서 지난 2025년에 31.6도로 4.4도 올랐다. 흑산도는 지난 2015년 24.6도에서 지난 2025년 28.7도로 4.1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평균기온도 흑산도가 지난 2015년 13.6도에서 지난해 15.1도로 1.5도 상승했으며, 완도도 같은 기간 14.5도에서 15.6도로 1.1도 올랐다.

이번에 공개된 국가생물종목록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국내 서식 생물종은 6만2604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말 6만1230종에서 1년 새 1374종 늘어난 수치다. 새로 등록된 신종은 307종으로, 무척추동물 215종, 원핵생물 76종, 식물 8종, 균류 7종, 어류 1종으로 집계됐다.

자원관은 "인도, 인도네시아 등 열대지역이 주된 서식지인 이들 생물의 국내 서식이 확인된 것은 기후 변화 등의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장례식장까지 다회용기 확대…국비 33억 투입

영산강청, 광주·전남 31개 지자체 구입·대여·세척비 등에 50% 보조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일회용품 사용이 고착화된 장례식장까지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현장 운용 방식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광주·전남을 포함한 31개 광역·기초지자체에 국비 33억원을 투입해 지역 다회용기 보급 확대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지원은 다회용기 구입·대여·세척비 등에 쓰이며 국비 50%를 보조한다. 일회용품 보증금제 시행 지자체에는 국비 보조율을 70%로 높인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친환경 축제와 영화관 등에 17억원의 국비를 지원해 다회용기 611만 개 사용을 유도했고, 이를 통해 73t의 폐기물을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33억원으로 확대하고 적용

대상을 장례식장까지 넓혀 장례문화 전반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장례식장은 단기간에 조문객이 몰리면서 다량의 일회용품이 쓰이는 대표 공간으로 꼽힌다. 다회용기 전환이 이뤄질 경우, 회수·운반·세척을 어떻게 운영할지가 사업 성패를 가르는 현장 변수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환경청이 '세척 인프라 구축' 지원을 사업 전면에 내세운 것도 이런 이유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세척 인프라 구축을 병행하고, 향후 카페거리·공공도서관 등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신규 수요처도 발굴해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식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은 "일회용품 줄이기는 지속적인 실천이 중요한 과제"라며 "지역축제뿐 아니라 신규 국고 지원이 이뤄지는 장례식장에서도 일회용품 감량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환경단체 "통합특별법 '국립공원 해제' 조항 삭제해야"

환경단체들이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에 국립공원 난개발을 유도하는 조항이 포함됐다는 삭제 요구하고 나섰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지리산 사람들과 지리산 지기기 연석회의는 9일 성명을 내고 "특별법 264조의 '국립공원 해제 요구' 독소조항을 즉각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민주당이 박의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통합특별시장은 '공익사업'이라는 모호한 내용으로 국립공원 일부의 지정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도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이를 따르게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른 조항에 공원자연보전지구에 최소한

의 공원시설 설치를 허용하도록 돼있는데 이는 궤도·삭도(케이블카)를 포함한 것으로, 지리산을 겨냥한 범이기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은 "영농협 티양광 지구 지정 특례 조항을 살펴보면 통합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자연공원법을 무시하고 자연공원 안에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단체들은 "국립공원 1호 지리산은 민족의 영산으로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하는 곳"이라며 "보호지역을 늘리고 자연을 보전하자는 세계적 흐름 속에 이를 역행하는 '난개발 특별법'은 국가적으로 부끄러운 일로,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겨울진객 고니 떼, 영산강서 '자태 뽐내'

10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영산강 광신대교 인근 하천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으로 분류된 큰고니 떼가 노닐며 먹이활동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서구, 자원순환 우수 공동주택 경진대회…3월13일까지 신청

광주시 서구가 관내 100세대 이상 204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6년 자원순환 우수 공동주택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서구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실적(70점), 폐건전지·폐현광등 수거 실적(10점),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태(10점), 자원순환 실천 주민 참여도(10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오는 11월 우수 공동주택 10곳을 선정하고 총 2000만원의 포상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3월 13일까지 서구 누리집 공지사항의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구 자원순환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bbdsol32@korea.kr)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구는 3월 중 참여자 대상 사업설명회를 열어 경진대회 추진 절차와 실적 평가 기준 등 자원순환 실천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자원순환 우수 공동주택 경진대회를 통해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자원순환 실천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올바른 분리배출과 음식물쓰레기 감량 문화 정착을 위해 2013년부터 경진대회를 추진해 오고 있다. 서구는 지난해 '자원순환 우수 공동주택 경진대회'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32t 감량과 함께 폐건전지 1500kg, 폐건전지 930kg을 수거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동구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참여기업 19일까지 공개모집

광주시 동구가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참여기업 모집에 들어갔다.

동구는 오는 19일까지 '2027년 신재생에너지보급(용·복합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태양광·태양열 설비 설치를 비롯해 모니터링, 설계·감리 등 각 분야의 전문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협력체)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컨소시엄 선정 이후 수요·현장조사, 사업계획서 제출을 시작으로 공개·심층평가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최종 선정 결과에 따라 사업이 추진된다.

/윤준영 기자 yoon@kwangju.co.kr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 080-234-6588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 알로에